



4면

"기본에 충실한 대학 만들 터"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윤 2월 2일) 제32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가뭄 장기화 대비 용수원 개발 총력

도,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교세 21억 확보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양수장 등 집중 투입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앙기(4~6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12공), 양수장(2개소) 등 대체 수원공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8.4% 평년 대비 77.2%로 이앙기 용수공급은 가능하나 심진강변 저수율이 19%로 낮아 김제·정읍·부안지역 농경지(33천ha)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심진강변 저수량이 9,000만톤이나, 이앙기에 필요 용수량은 1억톤으로 △하천 답수(800만톤) △저수지 양수저류(900만톤) △금강 하천수 부안댐 등 보충수(1,500만톤) △농경지 피수 제어용(1,500만톤) 등 4,700만톤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1,462억원을 투입해 천수담·전 불령 말단부 등 가뭄 우려지역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대체 수원공 개발과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지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

되는 지역에는 단기 가뭄대책으로 87억원을 투입해 관정(678공) 개발, 뚝방(15개소) 설치, 송수관로(1개소) 등 부족한 용수원을 개발한다.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1,375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지역 간 용수공급 체계재편,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신·증설, 양수장 설치 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45억) △지역간 효율적인 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105억)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파손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1,060억)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및 하천 답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습기롭게 가뭄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분들도 눈물고 관리 용·배수로 물 채우기 등 사전 용수 확보 및 물 절약에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가뭄 우려지역 살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 건의 및 실효성 있는 가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 주도 참여, 청소년 권익 향상 지름길’

전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

종합 정보 포털 운영·상시적 정책제안 시스템 마련

민주시민 성장 환경 마련·창업지원 활성화 등

총 7개 발표... 도, 실현 가능성 여부 검토 후 행정에 반영

전북도가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근거해 운영되는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이며,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활동 참여위원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하고, 4월까지 14개 시·군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격려가 이뤄진 1부 순서에 이어 2부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중심이 돼 '청소년이 전라북도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정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또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며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며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 참여위원회 활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격려가 이뤄진 1부 순서에 이어 2부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중심이 돼 '청소년이 전라북도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정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도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시적 청소년 정책제안·반영·평가 시스템 마련(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전진 1부 순서에 이어 2부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중심이 돼 '청소년이 전라북도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정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도 대표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시적 청소년 정책제안·반영·평가 시스템 마련(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전진 1부 순서에 이어 2부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중심이 돼 '청소년이 전라북도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정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관기 캔 음료 접자 표기(고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모두 7개로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은 참여위원회 및 활동진흥센터의 정책 제안 건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권리와 피드백을 받았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경청을 통한 순위 입선 보다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대화가 아닌 발표회로 준비했는데, 수준 높은 정책 제안과 열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은 잘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제안된 정책들을 도 및 시군 관계부처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후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압박 지원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의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도, 개정 법률 소급 적용 환급 추진

생애최초 주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

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백만원 한도

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한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을 사전 확인해 방문하지 않 당부드린다"면서, "개정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 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